



룻기의 등장인물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나 영향력 있는 지도자, 능력 있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께 <캐스팅>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그분의 구원스토리에 <캐스팅>하셨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역할과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마음껏 발현합니다.

주인공 룸은 어찌 보면 평범한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선택을 기피하는 대상입니다.

룸은 이방 여인 중에서도 모압 출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자손이 근친상간으로 태어났다고 하여 더욱 멸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남편 없이 시어머니와 여자 단둘이 산다는 것이 놀라워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여인 룸을 눈 여겨 보시고 캐스팅 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위한 위대한 구원스토리에 특별한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랜드스토리는 작은 마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추수를 하고 이삭을 줍는, 어쩌면 사소하고 소시민적인 일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잊고 빈손으로 돌아온 나이든 여인을 기꺼이 캐스팅 하셨습니다.

남편을 잊고 이방 땅에서 눈치 보며 이삭을 주워야 하는 젊은 여인을 기꺼이 캐스팅 하셨습니다.

과부, 고아, 맹인, 문동병 걸린 사람, 여자 아이, 어린이,

성경은 세상이 선뜻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을 주연과 특별한 조연들로 등장시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수많은 <룸>을 그분의 이야기에 캐스팅 하십니다.

시골, 일상, 소시민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

혹은 <땅>이 없고 정식으로 <추수>할 수도 없어

떠돌아다니며 <이삭>을 주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

비주류, 주목 받지 못하는 사람, 조직적으로 따돌림 당하는 사람들,

인종과 출신, 성별로 인해 존재 자체를 거부당하는 사람들,

이름대신 아픈 경험의 낙인으로 불리는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자기의 <소유>로 삼으십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값진 보물로 캐스팅하십니다.

우리의 소소한 일상, 아픈 상처, 상실과 고통이

하나님의 그랜드스토리와 만나 간증과 은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스타>가 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